

# 위로와 추모의 선율, 빛고을 적신다



광주시립합창단은 오는 18일 5·18 추모 공연으로 베르디의 '레퀴엠'을 무대에 올린다. 사진은 지난해 광주시립합창단이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함께 공연한 '엘리아' 공연 모습. <광주시립합창단 제공>

'오월광주'를 기리는 클래식 공연이 마련된다. 광주시립합창단의 베르디 '레퀴엠'과 광주국제교류센터의 '오월음악회'다.

'레퀴엠'(requiem)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는 미사음악으로 듣는 이들에게도 진한 감동을 준다. 광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임한규)은 브람스, 모차르트 곡과 함께 '3대 레퀴엠'으로 꼽히는 베르디의 '레퀴엠'을 공연한다. 광주와 민주정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산화한 희생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는 5·18광주민주항쟁 제36주기 추모 공연이다. 18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베르디 '레퀴엠'은 혼성 4부 합창, 4명의 독창자, 대편성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대작이다. 이번 무

gwangju.go.kr) 예매 가능. 문의 062-415-5203~5. 광주국제교류센터가 주최하는 '오월음악회'는 15일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오월 음악회'는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로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지역 음악인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오월 광주를 함께 기억하는 것과 함께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 음악회이기도 하다. 광주 애육원 '꿈을 품은 메아리 합창단'의 '프랑스 동요 메들리'(편곡 김현옥)로 시작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비롯해 다양한 프랑스 음악을 만날 수 있다.

피아니스트 이성씨는 드뷔시의 '달빛'을 들려주며 소프라노 박계·송미나씨는 포레의 '여기에 내 영혼이'를 선사한다.

외국인 연주자 무대도 눈에 띈다. 바리톤 마리스 뷔폴리스가 '돌시네아를 만난 돈키호테'를 선사하며 바이올리니스트 이든 존스는 뮤지컬 '레 미제라블' 메들리를 연주한다.

또 소프라노 김미옥·강양은·김애령·박경숙·김선희, 테너 고규남씨가 비제의 '그대 마음을 열어주소', 생상스의 '삼손과 데릴라' 중 '그대 음성 내 맘 열리고', 구노의 '파우스트' 중 '보석의 노래', '벚노래' 등을 선사하며 피아니스트 박의혁씨가 '5월의 노래 주제에 의한 환상곡'을 들려준다.

그밖에 가야금주자 성심은, 서영무용단, 빛고을 무등가야금연주단이 '아리랑 힐링', '가야금 산조와 한국 무용의 대화',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을 선사한다.

전석 초대 공연으로 교류센터 홈페이지(www.gic.or.kr)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문의 062-226-27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문화예술로 만나는 '오월'

④ 5·18 기리는 클래식 공연

광주시립합창단 '레퀴엠' 무대

18일 문예회관 대극장

부산시립합창단·광주시향 협연

광주국제교류센터 '오월음악회'

15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다양한 프랑스 음악 들려줘



마리스 뷔폴리스



강양은



김애령

대에는 부마민주항쟁의 아픔과 정신을 기억하는 부산시립합창단이 함께하며 광주시립교향악단도 무대에 오른다.

'레퀴엠'은 '라 트라비아타', '아이다' 등 유명 오페라를 작곡한 베르디의 작품답게 역동적이고 극적인 매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특히 웅장한 연주와 격정적인 멜로디가 인상적인 '진노의 날(Dies irae)'은 '매드맥스-분노의 도로' 등 수많은 영화와 CF등에 등장, 많은 이들에게 친숙한 곡이다.

솔리스트로는 소프라노 박미자(이화여대 교수), 알토 이아정(경희대 교수), 테너 윤병길(전남대 교수), 베이스 전승현(서울대 교수)씨가 참여한다. 전석 1만원. 광주문예회관 홈페이지(gjart.

## 청년작가 이은경 개인전 '과일상회'

17일까지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2016 유·스퀘어 청년작가 전시공모에 선정된 이은경 작가가 17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개인전 '과일상회'를 연다.

작가는 평소 가장 좋아하고 즐겨먹는 과일을 소재로 작업을 한다. 과일이 그려진 아크릴 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한 후 겹쳐보이게 하는 기법을 사용했다. 각 판마다 과일 채색 농도를 달리해 실제 색감을 보여주고 있다.

전시장에 펼쳐진 아보카도, 자몽, 딸기, 바나나, 체리 등 생생한 표현된 과일들은 상큼함이 느껴진다. 작가는 화려한 색감으로 먹음직스럽게 묘사한 과일을 통해 아름답고 탐스러운 것만 추구하는 우리사회 현실을 작품 속에 드러내고 있다.

제주대학교 미술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자몽' 이씨는 개인전 '상상하는 맛-아름다움의 재구성', '아름다움을 탐하다' 등을 열었다. 문의 062-360-8436. /김홍희기자 kimhy@

## 문화전당 '사라져 가는 목소리들' 무대

14~15일... 5개국 뮤지션들 소리·언어 탐색

아시아 5개국 작곡가들이 사라져가는 '소리'와 '언어'를 탐색하고 이를 새로운 사운드 퍼포먼스로 선보이는 공연을 펼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 이하 ACC)은 14~15일 오후 5시30분 '사라져가는 목소리들'을 극장1 무대에 올린다.

이번 프로젝트는 밴드 '어어부 프로젝트'의 밴드 마스터이자 영화 '곡성',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타짜' 음악감독인 작곡가 장영규가 큐레이터로 참여했다.

또한 일본에서 영화음악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아사창(Asa-CHANG), 중앙아시아의 현대음악 대표주자로서 우즈베키스탄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아티옴 킴(Artyom Kim), 마닐라 출신의 일렉트로닉 디제잉 아티스트

칼리프8(Caliph8), 레바논 및 중동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 중인 사운드 아티스트 라예드 야신(Raed Yassin) 등 아시아 5개국 뮤지션들이 참여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침묵 속에 사라져가는 소리들의 변주를 통해 다가올 미래를 상상하는 음악을 만날 수 있다.

참가 뮤지션들은 각국의 사라져가는 언어와 소리들을 리서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곡, 그 결과물을 서로 공유했다. 이 과정을 통해 원본의 소리 위에 새로운 음악이 덧입혀지면서 만들어진 색다른 작품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예매는 ACC 홈페이지(www.acc.go.kr)와 콜센터(1899-5566)에서 가능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문화재단 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생 30명 모집

광주문화재단이 오는 20일까지 '2016 지역 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교육생 30명을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멘토링 등 5개월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6월1일부터 9월2일까지 14주간 진행되며 실습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광주비엔날레 등 11개 컨소시엄 기관에서 현장을 경험하는 과정이다.

정경은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이한

호 주스컴퍼니 대표, 윤현석 컬처네트워크 대표 등 문화예술 분야 교수·기획자 등이 강사진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대상 자격은 ▲국내외 대학 문화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정부 및 지자체의 문화예술교육 수료자(순수 문화예술 분야 제외) 등이다. 20일까지 이메일접수(culture062@naver.com) 하면 된다. 문의 062-670-7495. /김홍희기자 kimhy@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품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맨션 1층)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400여점 전시

# 전남 나주에서 황포돛배 타고 시간여행 떠나요!



나주시의회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나주시산림조합    LG화학나주공장  
의장 홍철식    교육장 오인성    조합장 강희식    공장장 민경호